

## 국민의힘·개혁신당, "통일교 특검법 공동발의" 제3자가 특검 추천

법원행정처장이 후보자 2명 추천, 대통령이 사흘내 임명…수사기간 최장 150일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23일 이른바 통일교 특별검사법을 공동 빌의했다.

국민의힘 과규택 원내수석부대변인과 개혁신당 이주영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통일교와 정치권 인사 간 불법 금품수수 및 유착 의혹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법'을 제출했다.

법안은 수사 대상을 ▲통일교의 정치인 대상 금품·불법 정치자금 제공 및 수수 의혹, ▲통일교의 조직적 당원 가입 추진 및 당내 영향력 행사 의혹, ▲민중기 특검 및 대통령실을 포함한 관계 기관·공직자 등에 대한 수사 응제·무마·지연 또는 외곡·조작 의혹 ▲한학자 총재 회동 또는 그 요청·주선 및 관련 로비 의혹 등 4가지로 규정했다.

특검 후보자는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2명을 추천하도록 했다.

아울러 특별검사보 4명과 80명 이내의

특별수사관을 두도록 했으며, 파견 검사를 제외한 파견 공무원을 100명 이내에서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수사 준비기간 20일, 수사 기간 90일을 기본으로 하고 30일씩 2회에 걸쳐 연장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법안은 특검 임명 절차가 지연되지 못하게 좀처럼 세부 규정을 뒀다. 국회의장은 법 시행 3일 안에 대통령에게 특검 임명을 요청해야 하며, 국회부의장이 할 수 있도록 했다.

대통령은 특검 임명을 요청받으면 3일 안에 법원행정처장에게 후보자 추천을 의뢰해야 하며, 법원행정처장은 의뢰받은 지 사흘 안에 2명을 추천해야 한다.

대통령이 사흘 안에 후보자 2명 가운데 1명을 임명하지 않으면 연장자가 임명된 것으로 간주하기로 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법안 제출 후 기자들과 만나 "잘못된 정교 유

착의 금권정치는 이제 멈춰 세워야 한다"며 "더불어민주당과 범여권도 호응해줄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날 민주당이 국민의힘의 통일교 특검 요구를 전격 수용하면서 논의에 급물살을 뒀지만, 특검 후보 추천권 등을 둘러싼 여야 견해는 아직 좁혀지지 않은 상태다.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전날 기자들에게 법조계 등 제3자 추천 방식에 대해 "특검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인데 제3자가 특검(추천)을 하면 되겠느냐"며 야당 제안에 부정적 입장장을 피력했다.

곽원수 원내수석부대변인은 이날 "정치인들에 대해 수사해야 할 특검이기에 여당이든 야당이든 특검 선정에 관여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한편 조국혁신당이 23일 통일교 등 종교 단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정치인에 대한 수사를 자신들이 추천하는 특별검사를 추진하는 '통일교 특검법'을 제출했다.

서왕진 원내대표와 신장식, 차규근 의원은 이날 국회 본청 의안과에 '통일교 정치 개입 진상 규명 특검법'을 제출했다.

현재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여야 인사들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을 두고 특검법을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수사 내용과 특검 추천 방식 등을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이에 조국혁신당은 수사 대상은 '통일교'에서 '종교 단체로부터의 금품 수수 의혹'으로 범위를 넓혔다.

특검 추천은 여야가 아닌 조국혁신당이 단독으로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대법원·법원행정처 등을 통한 제3자 특검 추천 방식, 민주당은 양당 및 비교섭단체를 통한 추천 방식을 겨우 중이다.

진정화 기자

## 하나금융그룹, 취약계층 아동을 위한『크리스마스 행복상자 만들기』

연말을 맞아 지역아동센터 및 아동보육시설 등에 전달할『크리스마스 행복상자』 125개 제작

▲크리스마스 쿠키 ▲패딩·부츠 ▲무선 이어폰 ▲보조배터리 등 아이들을 위한 맞춤형 선물 구성



하나금융그룹(회장 함영주)은 지난 22일 명동사옥에서 2025년 연말을 맞아 취약계층 아동을 위한『크리스마스 행복상자 만들기』봉사활동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봉사활동은 하나금융그룹 퇴직 임직원으로 구성된 '하나금융동우회'와 그룹 대표 봉사단

체인 '하나사랑봉사단' 총 60여명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루어졌다. 이날 봉사활동에 참여한 임직원들은 '하나'의 마음으로 아이들을 위한 크리스마스 선물을 준비하며 연말 나눔의 의미를 더했다.

특히, 하나금융그룹은 공식 인

스타그램 계정(@hanafn.official)에서 2주 동안(11.19~12.2) 진행

곳에 전달될 예정이다.

이날 봉사활동에 참여한 한 직원은 "아이들이 따뜻한 연말과 행복한 크리스마스를 보내길 바라는 마음으로 참여했다"며 "직접 만든 쿠키와 편지뿐만 아니라 손님들의 응원 메시지까지 함께 전할 수 있어 더욱 뜻 깊은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한편, 하나금융그룹은 ▲취약계층 아동 문화체험 프로그램 ▲새학기 학용품 지원 ▲어린이 금융교실 운영 등 취약계층 아동을 위한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하며『함께 성장하며 행복을 나누는 금융』을 실천하고 진정성 있는 ESG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승원 기자

## IBK기업은행, 정책서민금융 성실상환자를 위한 'i-ONE 징검다리론' 출시

은행권 최초, 기존 징검다리론을 비대면 중심으로 개편



IBK기업은행(은행장 김성태)은 오는 24일 정책서민금융대출

을 성실히 상환한 고객이 보다 쉽고 간편하게 은행권 신용대출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신상품 'i-ONE 징검다리론'을 출시한다고 밝혔다.

'i-ONE 징검다리론'은 새희망 훌씨, 햇살론 등 정책서민금융대출을 성실히 상환한 고객이 자금 지원의 공백 없이 은행 대출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 대면방식의 기존 징검다리론을 비대면 중심으로 개편한 상품으로 은행권 최초 출시됐다.

대출 대상은 정책서민금융대출 이용 고객 가운데 최근 3년 이내 대출을 전액 상환하거나 2년 이상 성실히 상환 중인 근로소득자 또는 사업소득자다.

해당 상품은 최대 3천만원 한도 내에서 금리 연 9.0% 이내, 대출기간 최대 5년의 원(리)금균등

분할상환 방식으로 제공되며 중도상환해약금은 전액 면제해 고객의 금융 부담을 낮췄다.

특히 고객이 서민금융진흥원 앱(서민금융 있다)을 통해 징검다리론 연계 지원을 신청하면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기업은행에서 실시간으로 대출 심사와 실행이 가능하도록 절차를 간소화해 비대면 금융 이용 편의성을 크게 높였다.

김성태 은행장은 "이번 상품이 정책서민금융 성실상환자의 재기와 성장 기반 마련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국책은행으로서 상생·포용금융을 확대해 서민과 취약계층의 도약을 지속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승원 기자

## LH, 경남우주항공단 우주항공청 본청사 부지계약

지역아동센터 47곳, 94대 PC 나눔을 통한 디지털 학습 환경 개선 기대

양행정기관으로, 청사는 「경남우주항공 국가산단」 사천지구 내 A4BL, 69,615㎡ 규모 부지에 들어선다. 청사에는 우주항공 임무수행 기반 시설 및 업무공간, 홍보 전시공간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경남우주항공 국가산단(진주지구·사천지구)」은 총면적 165만㎡로, 지난 '17.5월 산업단지계획 승인'과 함께 9월 2단계 사업 준공을 마쳐 산업용지 사용을 위한 부지 조성이 완료된 상황이다.

LH는 우주항공청사를 중심으로 인근에 각종 우주항공산업 육성 지원시설 및 관련 공공 인프라의 집적화를 통한 우주항공 융합산업 생태계 조성을 집중할 예정이다.

아울러 주요 애자기업 유치도 이어지고 있다. 산단 진주지구에는 우주항공분야 중주 기업인 하나에 어로다이나믹스가 오는 '27년 상반기 생산시설 가동'을 목표로 이달 부지매입을 마쳤으며, 사천지구에는 주미더인하공과 캐피드 부지 계약을 마치고 착공을 준비 중이다.

임도식 LH 경남지역본부장은 "경남우주항공 국가산단이 국가 전략산업의 핵심 플랫폼이 되어 우주항공청사를 중심으로 대한민국 우주항공산업의 중심권역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고 밝혔다.

심귀영 기자

## 한국도로공사, 튀르키예 크날르~말카라 운행·유지관리

개통 전 사전 운영 컨설팅, 개통 후 운영·유지관리 사업 1,350억원 수주

작년 나카스~바삭세히르 사업 수주 이어…튀르키예 누적 수주액 3,000억원



한나카스~바삭세히르 고속도로 운영·유지관리 사업에 이어, 튀르키예 해상 도로 PPP 사업에 연속으로 참여한 사례다.

특히 공사는 해외사업을 시작한 이래로 O&M 단기사업 기준 최대 규모인 1,350억원 참여를 확정함에 따라, 튀르키예에서 누적 3,000억원 수주를 달성해, 유럽 시장에서의 운영·유지관리 경험을 축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함진규 한국도로공사 사장은 "이번 사업 참여는 한국 수출입은행의 측면지원과 함께 도공 기술력이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사례"라며, "2030년까지 해외도로 운영 유지관리 1,000km 수주를 목표로 아시아, 유럽 등 대규모 투자 및 운영유지관리 사업 참여를 통해 글로벌 O&M 시장 진출을 가속화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영진 기자

## 하림, 7년째 이어진 성탄 온정… 결식 아동 치킨박스 선물

월드비전·익산교육지원청과 동행… 7년간 약 1억 9,800만 원 후원

익산 관내 3개교 36명 아동 대상 조식 및 심리정서 지원 사업 전개



특히 이번 성탄절을 앞두고는 아이들이 좋아하는 용기리치킨, 치킨나겟 등 하림의 인기 제품들로 구성된 치킨박스를 제작해 직접 전달하며 온정을 더했다.

하림은 올해 '아침마포' 프로그램을 위해 총 2,760만 원의 예산을 투입했다.

조식 및 심리 정서 지원에 2,460만 원, 어린이날과 크리스마스 선물 구리미 제작에 300만 원이 각각 지원됐다. 이로써 하림이 지난 7년간 이 사업을 통해 전달한 누적 후원금은 약 1억 9,800만 원에 달한다.

하림 유영삼 기획조정실장은 지역사회와의 상생 의지를 분명히 했다. 유 실장은 "지역사회에 미래인 아이들이 경제적 어려움 없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돋는 것은 하림의 핵심 가치"라며 "앞으로도 교육지원청, 월드비전과 긴밀히 협력하여 아이들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현진 기자

거는 아동들의 결식을 예방하고, 심리 정서적 안정 체계를 구축해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과 학교 적응을 돋는 프로그램이다. 지난 2019년 첫발을 뗀 이 사업은 올해로 7년째를 맞이하며 하림의 상징적인 장기 사회공헌 활동으로 자리 잡았다.

올해 하림은 익산시 관내 익산 초등학교, 이리초등학교, 동북초등학교 등 3개교 학생 34명을 대상으로 매일 조식을 지원하고 있다.

이승원 기자